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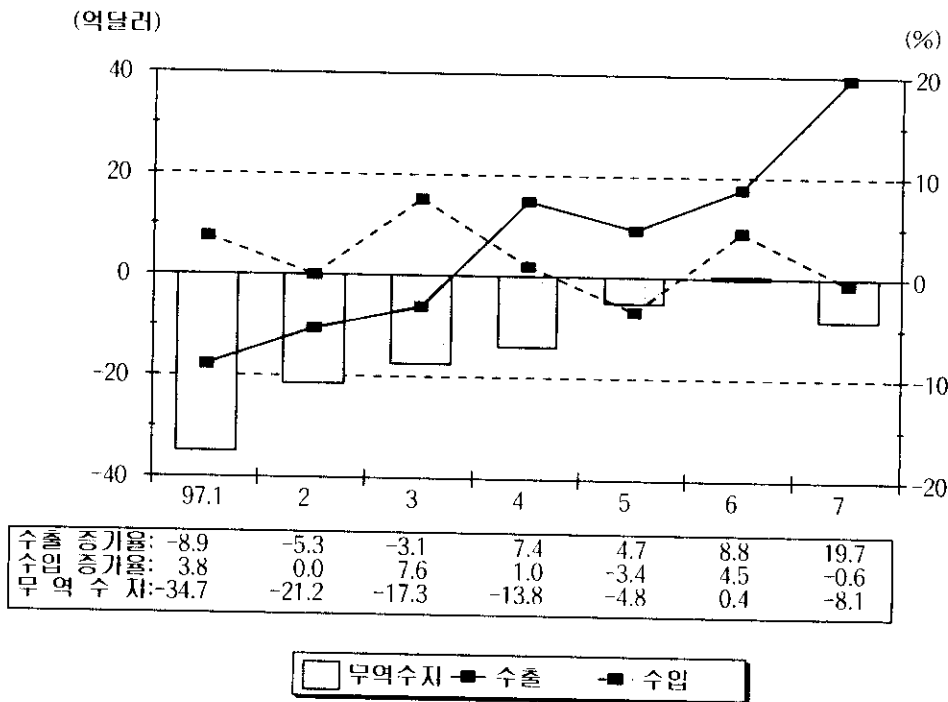
(2) 貿易收支 赤字속 輸出 增加勢

- (現況) 7월중 수출은 급증세를, 수입은 소폭의 감소세를 기록하였으나 무역수지는 6월의 흑자에서 다시 적자로 반전되었음
- (原因) 원화 약세에 따른 가격 경쟁력 회복과 미국의 경기 호조에 따른 대미 수출 증가 등이 수출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 왔음
- (展望) 수출 증가세는 지속되지만, 무역수지가 다시 흑자로 반전되기는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. 다만 그 규모는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

수출의 급증세와 수입의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7월중 무역적자는 8억 6백만 달러에 이름

- (現況) 7월중 수출은 급증세, 수입은 감소세를 보였으나 무역수지(통관 기준)는 8억 6백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
  - 수출은 반도체, 자동차 등 주력 상품의 수출이 호조를 보여 전년 동월 대비 19.7% 증가한 118.5억 달러를 기록
  - 반도체 36.6%, 자동차 22.7%, 철강 제품 33.9%, 석유화학 29.7% 등 주요 중화학공업 제품이 수출 증가를 주도
  - 수입은 자본재 수입의 감소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전년 동월 대비 0.6% 감소하여 126.5억 달러를 기록

<97년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>



수출은 대내외적 여건 호조에, 수입은 설비투자 위축에 따른 자본재 수입 감소에 기인

- (原因) 수출 증가는 대내외적 여건의 호조에, 수입 감소는 설비투자 위축에 따른 자본재 수입의 감소에 기인
  - 수출의 급증은 대내외적 여건 호조와 더불어 전년 7월의 수출 실적 저조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로 나타남
  - 원화 약세에 따른 가격 경쟁력 회복 효과의 가시화 및 미국 경기 호조에 따른 대미 수출 증가가 원인
  - 전년 7월의 수출이 99억 달러에 불과하여 상대적으로 금년 7월의 증가율이 크게 나타났음
  - 수입의 감소는 경기 침체에 따른 설비투자 축소로 인한 자본재 수입 감소가 주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

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지만 96년에 비해 개선이 기대됨

- (展望) 수출 증가세 지속과 함께 수입도 급증할 우려가 있어 무역수지 적자는 계속될 것임
  - 수출 여건 호조의 지속으로 수출 증가세는 계속될 것이나 수입이 다시 큰 폭의 증가세로 반전될 가능성이 있음
  - 다만 수출의 경우 엔화 약세에 따른 부진의 위험이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는 있음
  - 지금까지 기계류를 중심으로 수입 감소세가 나타났으나 경기 회복에 따른 설비투자 증가로 향후 기계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
  -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골프 용구, 의류, 가구, 승용차 등 경기 연동형 소비재 수입도 증가세 반전 가능성 높음
  - 무역수지의 적자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
    - 최근 4년간 월평균 무역적자는 9.5억 달러이지만 6월과 12월의 평균은 각각 2.4억 달러, 1.7억 달러에 불과함에서 알 수 있듯이 6월과 12월에는 적자폭이 감소되는 경향이 있어 왔음
    - 따라서 흑자 기조의 정착은 아직 기대하기 어려움
  - 무역적자 규모는 작년에 비해 축소될 가능성이 높음
    - 96년 무역적자의 37%가 3/4분기중 발생하였으며, 현재 수출이 호조를 보일 가능성이 높음을 감안한다면 96년에 비해 무역적자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기대됨

(전 민 규)